

최치익 선생

7

최치익 선생은 1912년 12월 3일에 원동 변강 영해구역에서 탄생하시었다. 1929년에 고향 도시 물라지 위스도크에서 고공을 마감하시고 1929년 1930년 일년간 하바롭스크 변강 알렉산드로-비 하이름가 논에서 일년간 교원으로 일하신 다음 동년 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 1936년에 모스크바 자동차 도로 대학을 필하였다. 대학을 필한 다음 원동에 파견되어 원동 영해구역 내무부 자동차 도로 관리국 기술검정부장으로 일하신 다음 한인강제 이주 로 인하여 가자흐 공화국 칩젠시에 도착하게 되 었다. 이 곳에 도착한 후 1938년 1940년간 칩젠 시 자동차 운전자 학교 교무주임으로 일하시고 1940년 1942년 사이에는 남부 가자흐스탄 자동차 관리국 총기 사로 일하였는데, 1942-1943년에 자동차 전문 학교 교장으로 일하시었다.

1943-1944년 간에는 남부 가자흐스탄 지역에서 전근 되어 알마아타 - 가자흐스탄 수도에 전근 되어 알마아타 주 자동차 관리국 총기사를 일하 시었다. 1945년 1946년 간에는 알마아타 주 자동차 총관리국 국장으로 일하시었다.

1946년 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에 따라 북한으로 국제공산당의 임무 수행 목적으로 파견 받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최치익 선생은 1946년-1948년 사이에 고흥성 관하 자동차관리국 부국장 직무에서 시작하여 국장역까지 하시었다. 1948년에 중앙정부가 조직되고 내각이 편성되자 최선생은 고흥성 내 고흥-원주국 총국장으로 일하시었다.

현반포에서 동쪽 상관이 개시되자 최치익 선생은 근대비 총문부 관리국장 직무에서 군사청을 소장 겸임으로 1953년까지 일하시었다.

1953년에 조선전쟁이 끝나자 다시 고흥성 산하 자동차-및 도로 총관리국장 직무에서 소련에 귀환하실때까지 일하시었다. 천년병도 역시 사상검출-자백운동에 걸리어 몇달 동안 관수업을 앓다가 1961년에 소련에 귀환하셨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파견을 받은 최선생은 자호 공화국 알마아타에 귀환되며, 자라프 공화국 고흥성 산하 기술총관리국 부국장으로 임명되며 1972년까지 일하시었다. 1989년 12월 21일에 사망하시는데까지 공화국유 연구생활을 하시었다.

최치익 선생은 민족 공화국에서 사업화 실시 극기 훈장, 자유유럽 훈장 외 무다한 메달과 명예 훈장, 포상장들을 받았으며, 수십개의 소련 훈장과 메달도 수여 받았다. 현재 그의 자손들은 전북도 알마아타에서 살고 있다.

12/12/2000. M. Andrews